

기업 10곳 중 3곳 “신입사원 안 뽑는다” 구직난 가중

2018년 기업 채용 전망

공채보단 상반기 수시채용 많아
인사담당자 “채용 때 성별 고려”
기업 초임연봉 평균 2464만원



올해 기업들의 신입 채용이 전년보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 방식은 공채보다 수시채용이 늘어나고,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채용이 집중된다. 제조업이나 생산분야가 채용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신입 초임이 구직자의 희망연봉보다 적었다. 직원 채용시 직무에 따라 성별을 본다는 기업이 81%로 직무별 채용 성별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기업 72% 신입 채용한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기업 65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신입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가 신입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입 채용을 했다는 응답(76%)보다 4%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난 해보다 신입 채용이 줄어들 것을 암시했다.

채용방식은 공채보다는 ‘수시채용’(6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채, 수시 모두’(24.1%), ‘공채’(9.3%)의 순서로 답했다. 채용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48.3%) 실시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상반기’(44.5%), ‘하반기’(7.2%)의 순이었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신입 지원자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50.8%, 복수응답)

이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43.2%), ‘고졸’(37.3%), ‘대학원 이상’(5.7%)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신입사원 채용 분야는 ‘제조/생산’(30.8%, 복수응답)이 1위였다. 이어 ‘영업/영업관리’(28.7%), ‘연구개발’(16.7%), ‘서비스’(14.3%), ‘IT/정보통신’(14.3%), ‘인사/총무’(11.4%), ‘마케팅’(9.3%), ‘디자인’(8.9%), ‘기회/전략’(8.2%), ‘구매/자재’(8%) 등이 있었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신입 초임 연봉은 구직자의 희망 연봉보다 적었다. 응답 기업들의 신입사원 초임연봉 평균은 246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진행된 신입 구직자 대상 설문에서는 희망 연봉 평균이 2573만원으로 나와 109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신입 초봉 평균은 대기업 3174만원, 중견기업 2892만원, 중소기업 2394만원 순이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약 33% 높았다.

기업들이 신입을 채용하는 이유는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58.9%,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39.9%),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25.1%), ‘새로 진출하는 분야의 인재가 필요해서’(

12.2%), ‘올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8.9%), ‘작년 경영 성과가 좋아서’(3.6%) 등을 들었다.

반면 신입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그 이유로 ‘현재 인력으로 충분해서’(46.3%,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인건비가 부담돼서’(27.5%), ‘경력직 채용으로 대체할 계획이라서’(23.8%), ‘업황이 좋지 않아서’(21.3%),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적 부담이 되어서’(8.8%), ‘구조조정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서’(8.8%), ‘비정규직을 뽑을 예정이어서’(5%) 등이 있었다.

◆직원 뽑을때 성별 본다

대부분 기업들이 채용 시 구직자의 ‘성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412명을 대상으로 ‘채용 시 성별 고려’에 관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의 81%가 ‘성별을 고려한다’고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성별을 고려해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별에 따라 적합한 직무가 있어서(78.1%,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 우수한 역량에 차이가 있어서(21.3%), 기업 내 성비 불균형을 막

기 위해서(16.5%),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1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성별에 따라 선호한 직무는 남성의 경우 생산/현장(51.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영업관리(40.4%), 기획/전략(18.3%), IT/시스템 운영(13.5%), 인사/총무(11.4%), 연구/개발(10.2%) 등이 꼽혔다. 여성을 선호하는 직무는 재무/회계(39.2%), 인사/총무(32.0%), 서비스(28.1%), 광고/홍보(24.6%), 마케팅(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의 68.2%가 성별 외에도 채용공고에 밝히지 않은 자격요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74.5%)이 가장 많았고, 외국계기업(69.2%), 중소기업(68.4%), 중견기업(65.9%), 공기업/공공기관(65.2%)이 뒤를 이었다.

채용공고에 밝히지 않지만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요건 1위는(복수응답) 나이(52.0%)로 나타났다. 이 밖에 거주지(28.1%), 전공(23.1%), 학력(17.8%), 자격증(17.4%), 결혼여부(12.8%), 외모(8.9%), 어학점수(6.0%), 종교(3.2%) 등도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개 자격요건으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초등 ‘어려운 숙제 금지’·중학교 ‘22개교 객관식시험 폐지’ 조희연 “교육혁신 모든 학생 누리게 할 것”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2018년 업무계획

‘1수업 2교사제’ 10곳서 시범 도입
서울형 혁신학교 200개교로 확대
‘완전 추첨제’ 도입 여부 3월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8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선학학습 연관 숙제나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이른바 ‘엄마숙제’가 금지된다. 자율협사립고 완전 추첨제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한 수업에서 두 명의 교사가 공동 참여하는 ‘1수업 2교사제’가 1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도입되고, 중학교 22곳에서는 객관식시험 없이 학생을 평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최종 결정해 3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실시되는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입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고등학교 입학경쟁 완화와 중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입학전형과 학생 배정 방식이 바뀐다.

초등학교에서는 선학학습을 필요로 하는 숙제가 금지되고, 자사고 학생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완전추첨제’ 도입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도입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의 시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개방-연합형 종합 캠퍼스 교육과정’도 확대되고, 학생들이 제품을 기획하고 3D프린터 등을 활용해 직접 제작하는 ‘서울형 메이커교육(미래 공방교육)’은 올해 신규 도입된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현재 189개교에서 올해 200개교까지 확대되고,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도 활성화를 통해 혁신학교의 교육방식이 전체 학교로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정규 수업 때 담당교사를 돕는 협력교사 수는 82명에서 110명으로 늘고, 10개교 정도의 초등학교에서 한 수업에서 두 명의 교사가 수업을 하는 ‘1수업 2교사제’가 시범 도입된다.

아울러 초등학교 선학학습 필요성이 요구되는 숙제나 부모 도움이 필요한 숙제가 금지되고, 1~2학년의 경우 ‘숙제 없는 학교’ 운영도 추진된다.

중학교 중 22곳에서는 객관식 시험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수행평가와 서울형 시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학생 성장 모니터링 시스템’ 선도학교로 지정해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까지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의 정책을 복원하고 확장하는데 주력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의 혁신을 기반으로 소수의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반화하는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6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결과 공개

동국대·건국대·대진대·아주대·한림대... 2019 전형계획 등 소개

동국대 등 6개 대학들이 공동으로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결과를 공개한다. 2019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등을 위한 교사 대상 설명회도 잇따라 개최한다.

동국대학교(총장 한대식)는 6개 대학이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종 모의 서류평가 연수’를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6차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는 대학은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건국대, 대진대, 아주대, 한림대 등 6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2018학년도 학종 모집 결과와 모의서류평가의 실제, 2019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학종 서류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 안내 등을 제공한다. 설명회는 오는 16일 서울 광진구를 시작으로 22일(춘천), 23일(수원), 24일(서울중구), 25일(의정부), 29일(경주)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단신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선출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사진)가 한국국제경제학회 총회에서 제4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한국국제경제학회는 대학 경제학 교수들과 공·사립 연구기관, 기업체 및 정부의 경제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정회원으로 약 15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최 교수는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출범과 함께 교수로 임용됐다. 이대 국제통상협력연구소장 및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 당시 ‘FTA 교수연구회’를 창설해 지금까지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서울대 ‘자연과학 공개강연’ 내달 10일 개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KAOS(카오스)재단이 주최하고 인터파크와 Y TN SCIENCE가 후원하는 서울대 자연과학 공개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 과학동감’이 오는 2월 10일 교내 문화관 대강당(73동)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은 서울대의 대표적인 과학 나눔 프로그램으로 1994년 1회 강연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22회)부터는 카오스재단의 참여로 공연의 형식을 빌린 새로운 장르의 과학 강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강연은 지난 22회부터 이어진 ‘과학자의 꿈과 도전’을 대주제로 하고 ‘과학(動)감’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석학 4인의 강연, 학생 동아리의 춤 공연 등이 마련된다.

서울시립대, 교수 등 9명의 ‘진짜 진로 이야기’ 듣는다

서울시립대는 서울휴먼라이브러리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6일~18일까지 ‘9인 각색, 사람책과 함께하는 진짜 진로 이야기’를 교내 창공관 대강당의실에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신희권 ▲영어영문학과 권영희 ▲조경학과 소현수 ▲도시공학과 정석 ▲건축학과 이충기 ▲철학과 이종환 교수와 서울휴먼라이브러리의 진로·진학 상담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책’ ▲행복플라워 김추복 ▲(주)에이치랩 김형민 ▲(사)JUMP 이의현 대표가 참석해 시민들과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서울시립대 교수 6명은 각 전공 소개와 자신만의 공부법을, 기업 대표 3명은 자신이 부딪혀 개척한 진로를 청중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인천재능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수도권 유일 선정

인천재능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 시범 운영대학’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인천재능대는 앞서 ‘대학연계형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와 ‘Uni-Tech 통합교육 육성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시범 운영대학 시범대학까지 선정됨에 따라, 명실공히 일학습병행제 선도대학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기우 총장은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시범 사업 선정을 통해 2학년 재학생들이 조기에 취업을 보장받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적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